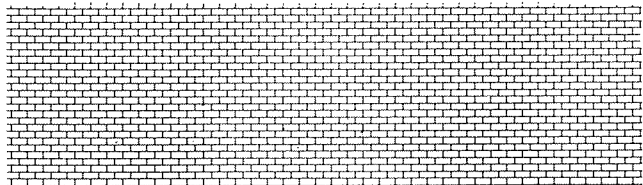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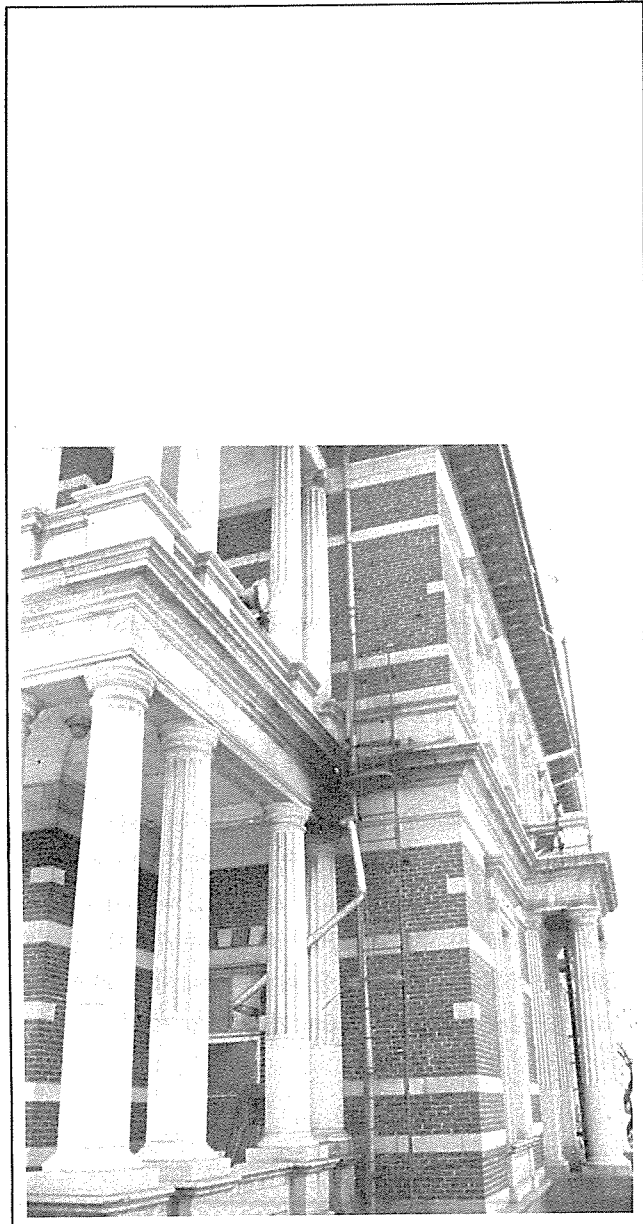


月間建築情報



'80. 9. 1. — 9. 20



小型住宅建設 확대, 공공부문은 15평이내로 民間業者의 소주택 건설의 무량은 50% 이상으로

8월30일, 건설부에 따르면 庶民住宅不足을 해소하기 위하여 15평이하 소형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25평까지로 돼있는 國民住宅規模를 하향조정, 稅制·金融상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大韓住宅公社 등 公共部問의 住宅建設은 모두 15평이하로만 지어 물량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民間住宅業者의 小住宅建設義務量을 늘려, 指定業者는 40%에서 50%이상으로, 登錄業者는 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40평 이상의 大型住宅建設은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또 住宅組合에서 건설하는 住宅의 규모도 최저 13평에서 최대 25평까지로 규제해서 小型住宅의 공급을 확대키로 규제해서 小型住宅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의 觀光호텔 87%가 都心에 밀집 都心半徑 5~10km지역에 건립권장

8월30일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66개 호텔 중, 도심 반경 5km이내에 있는것은 57개 (87%)에 달하며, 객실수로는 전체 13,054개 객실 중 10,045개 객실 (77%)이 도심지에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호텔 중 도심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호텔은 39개 (60%)에 달한다.

서울시내 호텔의 지역별 客室分布를 보면 5km 이내가 10,045개 (77%), 5~10km 사이는 2,085개 (16%), 10~15km 사이는 9,24개 (7%)로 밝혀졌다.

교통부는 앞으로 건립될 觀光호텔은 가급적 都心地 건립을 억제, 漢江 이남 환경이 쾌적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즉 앞으로는 호텔 건립은 도심 반경 5km 이내에는 10%, 5~10km 사이는 80%범위내에서 허가할 방침이다.

교통부가 도심 반경 5~10% 사이 호텔 건설후보지로 권장하고 있는곳은 江南區 登村洞·木洞地域, 永登浦區 堂山洞·永登浦洞地域, 冠岳區 木洞地域, 京畿道始興郡 果川地域 등이다.

그런데 서울 都心半徑 5km 이내 地域은 南쪽으로 龍山 駅~漢南, 東쪽은 往十里로터리~龍頭, 北쪽은 鐘岩洞~貞陵~洗劍亭, 西쪽은 弘濟洞~南加佐洞~西橋洞을 잇는 안쪽이다.

建設部長官에 金周南씨를 任命 全斗煥 대통령 대폭 改閣 단행

全斗煥 대통령은 9월 2일, 朴忠勳 국무총리 서리 등,

전 국무위원이 낸 사표를 수리하고 南應祐 전 부총리를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하는 組閣을 단행했다. 이 組閣에서 建設部長官에 金周南 경기도 지사를 새로 임명했다.

金長官(49, 江原 江陵)은 서울大商大卒, 高試行政科 합격, 企劃院 予算局長, 建設次官, 京畿知事を 역임한 바 있다.

政府工事 勞賃單價 평균 15% 인상 9월 1일부터 소급 실시

9월 3일 재무부는 정부발주공사와 물품 구매에 적용할 政府勞賃單價를 공사부문의 경우 평균 15%, 제조업은 평균 10%를 각각 인상, 9월 1일자로 소급 시행키로 했다. 공사부문의 주요직종별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3,690원(중진)→4,080원(인상) △거푸집목공 5,940원→6,730원 △비계공 6,350원→7,070원△미장공 6,420원→7,160원 △콘크리트공 5,030원→5,790원 △철근공 5,960원→6,660원이다.

技術用役業界, 一般建築物 設計도 허용 주장 건축구조기술사등 확보하여 수행가능도

9월 5일 技術用役業界에 따르면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綜合建設技術用役業체도 특수공장 건축물 뿐 아니라 一般建築物의 設計 및 監理業務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것을 촉구했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는 건축설계에 필요한 建築構造 등의 技術士 등을 보유, 모든 건축물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關係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특수공장 건축물의 구내에 포함된 一般事務所·寄宿舍 등부대시설까지 플랜트 엔지니어링이 설계·감리를 할 수 없고, 이를 일반 建築士事務所만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發注者나 建設業체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豪華墳墓 모두 철거하기로——보사부 1차로 封墳 45평인것등 84개 縮造

보사부는 9월 5일, 전국의 호화분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가 끝나는데로 철거, 縮造토록하는 원칙을 세우고,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것 중, 주변주민과 묘지 소유주가 희망할 때는 공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77년 9월 개정된 埋葬 및 墓地등에 관한 法律 施行令에는 墳墓 1基당 점유면적 6평(20m²)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合葬의 경우는 7.5평(25평)이하로

규정했다.

石物은 분묘 1기당 床石·碑石(높이 2m이하)이 각각 1개씩과 기타 1개에 한하도록 했으며 전체 묘지면적은 1개 분본일때에 150m²(45평)이하로, 문중 또는 가족묘 지일때에는 2,000m²(600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大型빌딩, 事務所 賃賃誘致 경쟁 駐車費할인, 내부장치 제공 등

9월 6일 관련업체에 의하면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대부분의 事務所賃賃業체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작년말 수준에서 동결한채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層別差等賃賃科 적용, △駐車費 할인, △内部裝直 제공등 사실상 사무실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企業들이 심한 資金難에 직면하자 經費節減·經營合理化를 위해 임대료가 싼 변두리로 사무실을 옮기고 있는데다 지난 8월 23,000평의 敎保빌딩이 문을 열었고, 大韓火災保險빌딩·三煥빌딩 등이 9월과 11월에 각각 문을 열기로 하고, 事務所 賃賃誘致에 나서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再開發地区 건축물 改·補修 허용방침 사업추진에 영향없는 범위내서——서울시장

朴英秀 서울시장은 9월 9일 鐘路와 中区庁을 순시, 再開發事系地区안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개축이나 보수를 하지못하게 묶여있어 건물이 남아 火災나 崩壞등의 大型安全事故를 빚을 우려가 많다는 보고를 받고 「당장 再開發事系를 착수할 지역이 아닌 곳은 이 사업의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않는 범위 안에서 改築이나 보수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축이나 보수를 할 수 있게 하는것은 그 뒤 再開發事系 추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해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도시행정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住民과의 합의에 의한 행정을 떠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道路整備나 広場등 公益과 私益을 적절히 조정하는 가운데 市民의 財産權이 크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市民의 편에서 시책을 떠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団地 가스施設 불량 30% 한국가스 安全公社 조사 결과

9월 9일, 韓國가스安全公社가 서울시내 11개 아파트

団地の 가스安全使用 계몽대상 27,638가구중 안전점검을 의뢰한 785가구를 점검한 결과 29.8%인 234가구가 시설 불량으로 밝혀졌다.

이를 원인별로 보면, △연소기 불량 15.3%, △연소 상태 불량 5.5%, △배관불량 0.1%, △밸브·코크 불량에 6.1%,△주변화기 인화물질 불량이 2.8%로 나타났다.

自家마련에 자기자금 평균 1,306만원 들어

'68년 대비 11년간에 10배로 올라

무주택자가 自家 마련에 은행 용자를 제외한 自己資金이 평균 1,000만원 이상 든것으로 나타났다.

9월 9일 관계당국이 작년에 入住한 家口를 대상으로 조사한 自家入住金額現況에 따르면 전체의 76.5%가 自家마련에 1,000만원 이상이 소유되었으며 1,000 만원 미만으로 自家를 마련한 가구를 23.5%에 불과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自家마련에 자기자금 1,000만~1,500 만원을 들인 가구가 47.9%, 1,500만~2,000만원을 들인 가구가 21%이며, 7.6%는 자기자금 2,000만원 이상을 들었다.

작년, 평균 住宅入住金額은 전국이 1,306만 4천원, 서울이 1,793만3천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自家入住金額은 78년에 비해 1년 사이에 23.5%인 341만 4천원이 올랐으며, 오름세가 가장 심한 지역은 忠州 39.3%(283만 3천원)이고, 다음이 水原 32.2%(411만원), 仁川 24.9%(243만원)로 大都市는 평균 13.4%, 中都市는 9.2%가 올랐다.

自家入住金額은 68년 131만원에서 79년 1,300 만원으로 늘어 11년간에 10배로 올랐다.

聯立住宅 事業承認범위 50가구이상으로 확대

각종 非違근절위해 일제점검, 추적처벌

9월10일,건설부에의하면연립주택 건설 및 분양에 따른 잡음을 시정하기위해 建設部·內務部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우선 전국의 50호미만 聯立住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着工前 대금착복 도주자, 2중분양자, 불실시공업자를 적발 처벌키로 했다.

또 免許대여자와 불성실 監理者는 면허취소하고, 관계 공무원도 징계하며, 市·郡·区庁별로 建築案内所를 설치, 분양받을 사람에게 대해, 건축허가여부·준공검사여부 등에 관한 안내를 맡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住宅建設促進法등 관계법을 개정, 聯立住宅事業承認範圍를 5가구(현재 50가구)이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하자의무 보수기간 및 건축이행 보증제도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건축주와 토지소유주를 동일화시키기 위해 垓地使用承諾制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동당 150명 미만인 경우 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防水·衛生燒房施設은 單鐘免許 소지자 이상의 유자격자만이 시공케하고, 1人監理를 綜合監理로 강화하고, 여러 건축주가 제각기 분양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주를 1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中心都市 집중개발, 工場을 유치——경제기획원

大都市 人口集中, 農村人口격감 방지코저

9월1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63%로 되어있는 都市化率이 81년에는 67.2%, 86년 72.9%, 91년에는 76.9%까지 확대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人口 2만구 모의 邑과, 5万정도의 市등 地方中小都市를 집중개발함으로써, 人口의 大都市 集中과 農村人口 激減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農村定郊 中小都市에 각종 工場을 대폭유치하고, 上下水道事業을 확대, 農村과 中小都市를 연계화시켜 農閑期에는 농민들이 인근 중소도시에서 취업, 農家所得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首都圈人口 91년까지 現水準서 억제

地方據点都市 100萬이상 규모로 육성——건설부

李圭孝 건설부차관은 9월16일, 정부는 都市 率의 급증에 따라 人口수용 재배치를 위해 首都圈整備計劃을 추진, 91년까지 人口를 현수준으로 억제하고, 地方據点都市를 100만 이상 인구규모로 집중 육성하며, 그밖의 中小都市는 自立 自給에 적합한 인구규모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大都市移出 및 農村의 工業化轉換化 人口 吸收를 위해 新開發圈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차관은 土地需給均衡과 地價安定을 위해서는 基準地價 告示地域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土地用途規制 및 去來規制를 강화, 公共 우선 이용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道路網의 정비확충을 위해 주요 地方道路를 国道化하고, 中央縱斷高速道路·西海岸縱斷高速道路(2개 노선)를 신설, 전국 고속도로망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申부총리, 당면한 經濟活性化 대책 발표

宅地 및 住宅需給 원활화 등

정부는 9월16일, 예금 金利引下, 輸出金融 달러당 용

자액引上, 不動産讓渡 所得稅率 완화 등을 골자로한 당면 經濟活性化 대책을 발표 하였다.

이 대책에서 「宅地 및 住宅需給 원활화 대책」요지는 다음과 같다.

- △ 不動産 讓渡稅率 引下
 - 2년 이내 讓渡, 現行 70%서 50%로
 - 2년 이후 讓渡, 50%서 40%로 (25평 이하 주택은 50%서 30%로)
 - 未登記 讓渡는, 現行 80%서 75%로 (조속한 시일내에 法改正)
- △ 住宅建設業體 運營資金 지원 늘려
 - 住銀서 9~12월 中, 200億원 지원 (당초 170億원에서 275億원으로 추가 공급)
- △ 福祉住宅賦金 대출 확대
 - 9~12월 中 1,000億원 대출예정
 - 1981년에 4,000億원 대출 (7 단호)
- △ 土地開發公社에 土地買入資金 300億원 추가
- △ 서울·釜山에 大單位 서민용 住宅團地 조성

公務員福祉會館 4 개소 建立

'81년도 공무원 연금기금 운영계획

총무처가 9월17일 확정 81년도 公務員年金基金運用 計劃에 의하면, 146억원의 예산으로 서울 등 4개 지역에 생필품판매소·매점·식당·이발소 등을 갖춘 公務員福祉會館을 처음으로 건립할 방침이다.

一般土地의 所有上限制 등을 검토——정부 투기 과잉 방지 위해 “公概念”도입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국토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土地 公概念 도입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9월18일, 관계당국자는 한정된 國土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寡點되고 投機對象이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農地와 마찬가지로 일반토지의 所有上限制를 실시하는 방안, △財産權 누진을 대폭 확대, 과다한 土地所有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所有權과 利用權을 분리해 土地 利用權 자체가 독자적인 재산권의 의의를 가지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土地利用規制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統廢合하는것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釜山地下鉄 1号線(九德~久瑞) 10月着工 80年代末까지 5個路線網 건설계획

교통부는 釜山市街地를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5개 地下鉄路線을 건설키로한 기본방침에 따라, 2중 1号線(九德운동장~久瑞洞, 22.5km)24개 역을 확정 오는 10월에 3단계로 착공키로 했다.

이번에 착공되는 釜山地下鉄 1号線은 1단계(面~市庁 앞, 6.6km)는 83년말까지, 2단계(西面~久瑞洞, 11.76km)는 82년부터 착공 3년내에 완공하며, 3단계(市庁 앞~九德운동장 4.15km)는 84년 착공 85년말까지 건설키로한 釜山地下鉄 基本路線網은 1号線(九德운동장~久瑞洞)이 市内中心街를 따라 건설토록 돼있으며, 2号線은 海雲台 久佑洞에서부터 출발 西面驛에서 1号線과 교차한 뒤 金海方面으로 연결토록 돼 있다. 3号線은 楊亭광장에서부터 兪陵교를 지나 日光方面으로 연결되며, 4号線은 西面驛에서부터 勿禁方面으로, 5号線은 楊亭광장에서부터 蓮山광장역을 거쳐 幾張方面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다.

82년까지 宅地 275萬坪 조성

1단계 工團背後都市, 2단계 地方據點都市에

9월1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地方據點 및 工業團地 背後都市의 大型化 방침과 앞으로 실시될 새 公共住宅制度 도입에 따른 대량 택지공급을 위해 82년까지 총275만 평을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하기로 했다.

1단계로 工業背後都市인 浦項·群山·麗川·昌原 등 4개 도시에 100만평 규모의 大單位 庶民住宅地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IBRD(세계은행)에서 제공되는 1억달러의 措款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2단계 계획으로는 地下據點都市인 大邱·光州·全州 大田·淸州·東海·釜山 등 8개 도시를 선정, 175만평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의 財源은 정부의 土開公 出資金 과 土地債券 발행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